

문화광장



이 나 연
제주도립미술관장

동시대란 영어로 'contemporary'다. 일시적인(temporary) 시간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합께라는 뜻을 가지는 접두사(con)가 붙어, 모두 함께 겪는(지내는) 시간을 뜻한다. 같은 시대를 지나며 바로 지금 싱싱하게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동시대 미술이고, 당연히 그때의 시대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기 마련이다. 동시대의 공기를 담아내는 예술품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많은 검증 거쳐 살아남으면 클래식이 되고, 대부분의 작품들은 시대를 거치며 자연스레 사라진다. 특수한 시대정신을 담은 작품들을 미술관에 담아 한 시대를 함께 정리해

우리 시대에 미술관에서

보는 전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제주에서의, 동시대 미술을 미술관에서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제주는 정반대로 시작의 가능성을 마련했다. 제주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미술의 가능성을 드러내 보일 실험이 필요하다면 지금이야말로 섬의 기회라 여겨진다. 말 그대로 완전히 특수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제주에서 열리는 '동시대 미술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된 동명의 전시가 <우리 시대에(At the same time)>다. 제주 전역에서 프로젝트 제주가 열리는 기간 동시에 마련되는 많은 행사와 전시들을 미술관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으로 모았다. 실내로 끌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변용된 제주의 행사들은 지금 제주의 '동시대성'을 생생히 보여주는 바로미터

다. 행사기간 미술관은 제주를 품는 제주미술만의 폐쇄적인 숲이 된다. 비대면으로 행사가 모두 전환된 세계 유산축전의 아트프로젝트는 전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영상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감상할 수 있다. 꽃자왈을 걸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는 줄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야외공간을 걸을 수 없다는 제약이 있던 이들에게도 감상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의 야외 숲과 미술관 실내에서 같은 작품을 다른 체로 '동시에' 전시하고 있다는 개념도 흥미롭다. 제주아트엔디디자인페스타는 유희공간이던 미술관 로비 공간을 관객들의 쉼터로 디자인하는 과감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중정컬렉티브는 미술관 중정을 작은 곳자왈로 재현한다. 셋보름미술시장은 3주간 직접 미술품을 거래해 볼 수 있는 슈퍼마켓을 미술관 전시장에 꾸린다. 작가가 그린 그림이나 조각을 모아

두고 보는 전통적인 방식의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낯선 풍경이 미술관에 펼쳐질 수 있다. 대부분 컬렉티브 형식을 띠거나, 행사를 위해 임시로 꾸려진 프로젝트팀이 미술관에서 새로운 방식의 전시를 고민하며 전시가 꾸려졌고, 전시 연출도 환경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방식이길 바랐다. 미술관 전시 역시 요즘의 기업들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며 환경적(environmental)이고 사회적(social)이면서 현상황에 맞는 지배구조(governance)를 가진 협업으로 만들어지길 바랐다.
관전 포인트 하나 더, 온라인으로 소개되는 제주 속의 행사들은 한 줄의 링크를 연어 어디로든 확장된다. 전세계 어디로든 뻗어나가고, 팬데믹의 제약 없이 활발하다. 어느 집집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무한한 확장의 가능성을 갖는다.

열린마당

천고돈비(天高豚肥), 양돈장 화재 주의



추 정 훈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무더웠던 여름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쌀쌀해진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또 하나 양돈농가에서는 돼지를 따뜻하게 살찌워야 하는 천고돈비(天高豚肥)의 분주한 계절이기도 하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 양돈장 화재는 17건으로 28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연평균 약 7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을 보면 17건 중 10건이 전기적 요인으로 양돈장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우선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용량을 무시한 문어

박식 배선 연결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전기시설에는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며 쥐나 벌레가 전선 겉부분을 갉아먹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선의 노후와 피복상태를 점검해 낡고 오래된 배선은 교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콘센트의 철저한 관리다. 콘센트 주위에 먼지가 쌓이고 밀폐공간에서 방역소독으로 염분과 수분이 흡착되면 트래킹(tracking)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에는 안전커버를 씌우면 트래킹에 의한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서귀포소방서에서는 2018년부터 다중이용장소, 취약계층, 양돈장 등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대상에 콘센트 안전커버를 보급하고 있다.
양돈장 화재는 피해 규모가 다른 화재에 비해 월등히 크다. 축사 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 진화에 나서며,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출동로도 꼭 확보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12~17세 백신 접종 자율 선택으로 진행"

이석문 교육감 "강제 안 할 것"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12~17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율 선택으로 진행되는 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7일 비대면으로 열린 월례기획조정회의에서 "12~17세 백신 접종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며 "미국은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을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나 통계 등이 미국과 다르다"고 피력.
이어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겠다"라며 "자율 선택으로 진행되도록 학교와 학부모, 도민사회와 소통·협력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
오은지기자
제주형 뉴딜 발굴·추진 강조
○...구만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27일 제주형 뉴딜 2.0 정책에 연관 사업들을 통합시키고 체계화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
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제주

도청에서 '제주형 뉴딜 1.0의 추진 상황 점검'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정책에 맞는 '제주형 뉴딜 2.0 계획'을 마련을 위해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주문.
구 권한대행은 "실·국장을 비롯해 일선 주무관까지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이해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달라"고 강조.
고대로그기자
착한가격 업소에 인센티브
○...제주시가 코로나19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시 관내에는 이달 1일 기준 착한가격 업소 11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업소당 종량제 봉투 50ℓ 20매를 비롯 20ℓ, 30ℓ 등 모두 100매를 지원.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형기자

사설

10월 황금연휴, 다시 도민불안 안된다

역시나 연휴기간 대규모 이동이 지역감염 재확산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수도권은 물론 지역에 감염자 속출로 이어졌다. 도민들은 이제 10월 황금연휴기간 지역감염 확산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도 방역당국이 새로운 비상대응체제로 도민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확진자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른 확산세를 보여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케 했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연휴직후인 지난 23일 14명, 24일 15명, 25일 7명 등으로 재확산 조짐이다. 추석연휴 제 소개되는 제주 속의 행사들은 한 줄의 링크를 연어 어디로든 확장된다. 전세계 어디로든 뻗어나가고, 팬데믹의 제약 없이 활발하다. 어느 집집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무한한 확장의 가능성을 갖는다.

서울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민들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백신접종 증가 등으로 10월 등교수업 확대, 거리두기 완화 등의 조치에 대한 기대도 불투명해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여기에다 10월 황금연휴도 다가와 지역감염 확산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다음달 2~4일 개천절 연휴와 9~11일 한글날 연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 행렬로 추가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특급호텔 고급펜션 등 객실 예약이 90% 이상에 렌터카 예약도 60~70%대를 보인 상황이다.
도 방역당국이 10월 연휴에 비상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대한 이동자제·출발 전 진단검사 권고를 더 알리고, 공항면과 관광지 방역 등에 한층 강화된 지침을 시행해야 한다. 당분간 도민들의 모임 제한도 더 강화돼야 한다. 10월 황금연휴를 잘 넘길 때 일사회복도 앞당길 수 있다.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이대로 놔둘 건가

얼마전 제주지역 주차문제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제주도가 실시한 '주차정책 도민인식 조사'가 그것이다.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은 주차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차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은 도민도 적잖이 공영주차장에 오랜기간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라일보 보도를 보면 이게 공영주차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관이다. 제주도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는 번호판이 없어 차량들이 방치됐다. 차량들은 곳곳에 녹슬어 있거나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어 오랫동안 방치됐음을 알려준다. 특히 트럭에는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행정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데

있다. 무단 방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 방치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강제이동 등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때문에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떼져 있거나 압류당해 장기 주차차도 행정에선 전혀 손을 못쓰고 있다.
도내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리문제가 골칫거리로 대두됐다. 방치된 차량도 문제지만 공영주차장 관리도 전혀 안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보에 실은 사진이 방치됐다. 차량들은 곳곳에 녹슬어 있거나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어 오랫동안 방치됐음을 알려준다. 특히 트럭에는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행정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데

부 고
문군하·승하(고성리목장조합장)
어머니 한양조씨 춘자(향년 93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27일 10시 22분경 별세 하셨습니다.
▶ 일 포: 2021년 9월 28일(화요일)
▶ 발인일시: 2021년 9월 29일(수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101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문 군 하 머느리 좌 정 옥
승 하 강 속 자
문 하 이 미 경
달 문 인 순 사 위 고 영 호
명 순 김 원 택
영 주 손 부 김 서 연
성 민 손 수 향
성 민 손 수 향
현 미 손 서 김 치 훈
연 미 손 서 김 치 훈
성 미 이 태 증
※ 연락처 : 문군하 010-4253-4090
문승하 010-9838-9999
문문하 010-3691-355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토지 매매 가격
1) 월드컵경기장 아래
대로변 865평 ★최저가30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강정동 해안도로 40m
741평, ★평당 200만원★ 펜션 및 전원주택지
4) 강정해안도로 점
607평 ★360만원★ 카페 최고부
5) 강정동 해안도로 100m
753평, ★평당 73만원★ 전원주택지, 투자용 최고
6) 강정동 해안도로 옆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호근동 범섬 부, 최고 전원주택
360평, ★평당 200만원★ 건축 바로 가능
010-2102-5424 / 010-6275-5200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향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노지감귤
○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행(9.23. ~ 9.30.)
- 대 상 : 9.30. 이전 극조생감귤 출하 희망농가(표선면 제외)
- 상품기준: 당도 8°Bx, 착색비율 50% 이상
○ 마무리 열매숙기: 착과량이 많은 나무 유주 극대과, 극소과, 중 결점과
○ 감습제 살포: 부피 감감 및 착색 촉진
○ 토양이탈 방지감귤
- 빗물이 유입된 경우 반드시 피복재를 걸어 토양을 건조시킨 후 재피복
- 9월부터 10~15일 간격으로 정기적 품질조사를 통하여 적정 수분관리
□ 만감류
○ 온도관리
- 하우스내 온도상승 최대한 억제(필요시 천정비닐 제거)
- 주간 온도 자연온도
※ 고온에 의한 과도한 증산작용은 수세 및 품질 하락 등 악영향 초래
☞ 하우스 개폐기 조작에 의한 고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우스 온도관리에 주의
○ 물 관 리: 정기적인 품질조사 후 관수량 조절
- 5~7일 간격으로 20톤/10a 내외
※ 과수원마다 물배점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과습이나 건조하지 않도록 물주는 양 조절 주의
○ 병해충 방제
- 검은점무늬병, 총채벌레, 꿀응애 등(사전 예찰 후 적용 약제 살포)
- 고온기 약해발생 주의: 이른 아침 농약살포, 3종 이상 혼용금지
○ 감습제 염면시비
- 수용성감습제 8월 중하순부터 20~30일 간격 3회 정도 살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2)